



2023년 2월 17일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제 24 차)

미사를 비롯한 모든 활동은 「삼밀삼비」를 피하며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실시해 주시고, 얼마간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1. 주일과 대축일 미사

- 1 주일의 미사에 참례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멤버 모두가 참가하는 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주일미사(교중미사)의 기도문은 「일본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신도 분들도 기뻐하며 '일본어 미사'에 참례하도록 독서, 신자들의 기도, 성가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등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의 미사는 가톨릭 신도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해 참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1. 2 주로 대규모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일의 미사가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멤버 모두가 참가하는 미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일의 미사의 횟수를 늘리는 것(오후에도 실시한다든가)도 검토해 주십시오.  
1. 3 필요가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필요한 외국어에 대해서, 블록에서, 한 달에 1 회를 한도로, 「외국어 미사」를 거행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블록회의 등에서, 필요하다면 인접의 블록 등과도 상담해 주세요.  
이를 위한 블록 내 신도의 이동도 인정합니다.  
이때 사이타마 교구 사제단의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요망에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또, (코가古河, 조소常総를 제외한) 이바라키현(현 전체가 한 블록)의 외국어 미사에 대해서는, 다른 블록에 준하는 적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 가능한 한 모국어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미사 등

2. 1 장례 미사(초야), 추도 미사, 결혼식
2. 2 대림절, 사순절의 피정이나 모임, 수호의 성인의 축일 모임이나 미사.  
우선 주임사제, 혹은 교회 관리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2. 3 교리(카테케이지스)  
대면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실시합니다만, 필요한 때에는 모국어로 해 주세요.  
이를 위해 교리교사(카테키스타)를 양성하고 임명하십시오.

### 3. 온라인 취급

3. 1 미사는 대면 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대면에서의 미사에 참가할 수 없는 분을 위한 공리를, 가능한 범위에서, 소교구(각 성당) 레벨로 부탁드립니다.
3. 2 영적인 기도 모임, 피정, 공부회(강좌)는 소교구(성당)을 넘어 참가해도 상관없습니다.
3. 3 다른 소교구(성당)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성사 준비의 강좌를 받고 싶을 때에는, 소속성당(소교구)의 주임 사제의 양해를 얻고 나서 받아 주세요.

### 4. 영성체 · 성가 · 회식에 대하여

#### 4. 1 영성체에 대하여

영성체는 당분간 계속해서 손으로 받으십시오. 또, 성체를 주는 사제 등의 손 소독에도 계속 충분히 조심해 주세요. 신도들이 성체를 받을 때 그 손바닥이 젖지 않도록 공리하십시오.

4. 2 미사는 신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사에서 성가가 가지는 역할의 소중함은, 이번의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한 후 성량을 억제 하면서의 가창을 허용합니다.

#### 4. 3 회식에 대해서

감염 확대의 근원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많은 인원수에서의 회식의 재개에 대해서는 각각의 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우선 주임사제, 혹은 교회 관리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